

획기적 공급 확대로 '주거 불안' 돌파...부동산 투기 억제 '유지'

2·4 공급대책 통해 수요자 내 집 갈증에 '단비'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문제없다" 입장 재확인

정부가 올해 2·4 부동산 대책(공공주택 3080)을 필두로 획기적인 공급 확대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도 '주거 안정'은 정부의 가장 큰 숙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을 주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핵심 4대 추진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 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으로 제시했다.

◇2·4 공급대책 본격 시행...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극복 과제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127만 가구에 2·4 공급대책의 61만 6000가구까지 포함해 총 181만7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압도적 물량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공 주도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도입된다.

공공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 분양 주택은 청약 대상을 고소득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반) 등 삶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국토부는 20만9000세대의 공적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공급 확대와 맞물려 균형발전, 인구구조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

문제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요자 부담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는 '공공자주주택'도 새로운 공급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공공자주주택은 자가 주택이지만 공공성을 지니는 분양 유형으로, 공공부문이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통제해서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이 같은 방식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 한때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유형 재정립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 계획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뒤 공공주도 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윤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면서 "추가적인 보안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규 전담조

직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통계 보안 작업에 착수했다.

◇'균형발전'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도농 개발이익 교차보전 추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형성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오는 6월말 발표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지자체들의 요청을 받아 서부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가칭) 추가가 검토되고 있다. 또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광역철도 사업을 지방까지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철도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상생발전 기반도 구축한다. 공공임대정책은 물론 올해 하반기 중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사업을 추진 시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하

나의 패키지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의 사업수익을 수도권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포스트 코로나·탄소중립 선언 실현에 국토교통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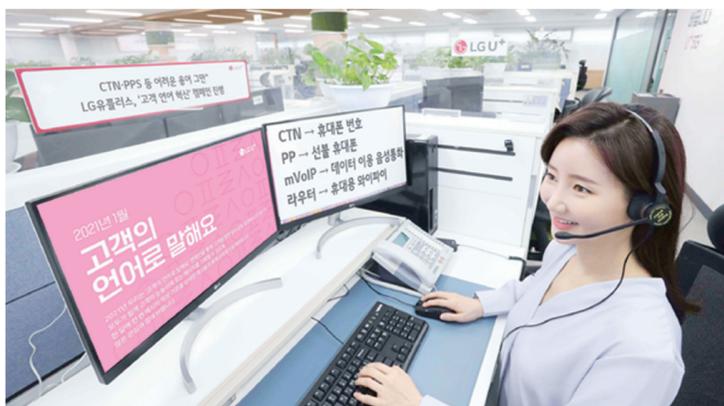
국토부는 또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혁신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 뉴딜'을 통한 2025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이 도입돼 공공사업에 적용되며, 공공이 스마트 기술을 적극 발굴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기로 했다. 건설업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 지불제, 기능인 등급제도 시행한다.

신(신) 산업과 택시 등 전통 산업의 공존을 위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돼, 승차 거부 없는 브랜드 택시(플랫폼 택시)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된다.

그러면서도 국토교통 분야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차량 운행 확대를 위한 수소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뉴스



LGU+, 어려운 통신 용어 쉽게 바꾼다

4년간 3706건 개선...올해 연간 캠페인으로 확대

LG유플러스가 복잡하고 어려운 통신 용어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는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여 충성 고객을 늘리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을 올해 전사 캠페인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설명을 찾아내 바꾸고, 이를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 센터 등 현장으로 확산하는 내용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고객이 보다 직관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명칭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순화한 언어 및 표현은 총 3706건에 이른다.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의 성과를 전사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연간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 활동이 고객과 맞닿아 있는 일부 부서에 국한됐다는 점을 고려, 전 임직원이 순화된 언어를 활

용할 수 있도록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스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외국어 표현과 전문용어 100여 개를 순화해 전사에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CTN은 '휴대폰 번호' ▲PPS는 '선불 휴대폰' ▲mVoIP는 '데이터 이용 음성통화' ▲라우터는 '휴대용 와이파이' 등으로 바꿨다.

한자식 표현과 외래어도 우리말로 교체했다. ▲과납금은 '더 납부한 금액' ▲선납은 '미리 납부' ▲요율은 '계산법' ▲해지 미환급금은 '해지 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 등으로 바꿨다. '부담'이나 '모비고', '도수' 등 복잡한 표현 역시 '전달이 안됨', '휴대폰 정보 이동', '분·초' 등으로 순화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고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방식도 전환할 계획이다.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 고객 중심으로 말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직원이 순화된 고객 언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

최이슬기자

영업시간 정상화, 마트 업계 반색...“무조건 좋다”

밤 9시 영업에서 11시까지로 확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유통업계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지자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직접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출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어제 영업시간 확대 첫 날이라 손님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차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비수도권 2단계→1.5단계)로 내리면서 대형마트와 SSM은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1시로 되돌렸다. 이날 수도권 대형마트 등에는 영업 시간 정상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일제히 내걸렸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형마트와 SSM은 석 달 넘게 영업 시간을 매일 2시간씩 손실했다. 업계에 따르면, 밤 9~11시 매출은 하루 전체 매출의 8~12% 수준이다. 백화점의 경우 영업 마감 시간이 평일엔 오후 8시, 주말에도 8시30분이기 때문에 영업 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시간 단축에도 지난



해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12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2.1%였다. 같은 달 SSM 역시 지난해보다 매출이 4.0% 올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건 알지만 영업 시간 제한이 없었다면 매출이 더 올랐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어쨌든 마트 업계는 영업 시간 정상화에 반색하고 있다. 당장에 밤 9~11시에 매장을 찾은 고객이 예전보다 적었지만, 차차 회복되면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 영업 시간이 늘면 매출 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마트 입장에선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2000만개 팔린 과자...GS25 협업, 중소 제조사 매출 3배 ↑

초코렛타, 매년 판매량 1~3위 유지...큰 인기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효자 상품 하나가 중소 식품 제조사 매출 규모를 3배로 키웠다. 지에스(GS)25는 자체 브랜드(PB·Private Brand) 과자 초코렛타가 지난 10년 간 2000만개 이상 팔리며 GS25 전체 PB 과자 중 누적 판매 1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초코렛타는 2011년 GS25 PB 과자로 출시된 이후 GS25의 PB 과자 60여종 중 매년 판매량 1~3위를 유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을 개발자 상표 부착(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생산해 GS25에 공급하는 제조 업체 '구아메이'는 10년 전 연간 매출 30억대에서 올해 100억대

를 바라 보는 회사로 성장했다. 박한용 구아메이 대표는 “GS리테일과 상생 협력을 통해 회사가 10년 전 대비 3배 이상 매출 신장을 이뤘다”고 했다. 지난해엔 드라마 '편의점 셋별이'에 초코렛타가 노출되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23만개가 수출되기도 했다.

GS25는 초코렛타 인기에 2015년 4월엔 화이트초코렛타를, 지난 4월엔 프리미엄 상품인 벨지안딕초코렛타를 내놨다. 벨지안딕초코렛타에는 벨기에산 고급 초콜릿이 사용됐고, 초콜릿 함유량을 2배 높여 더 진한 풍미를 냈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GS25 PB 과자 60여종 중 판매 1위에 올라 있다.



GS25 관계자는 “대기업 상품이 아닌 중소 제조사와 연계해 선보이는 PB 과자 매출 규모가 10년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며 “GS리테일은 앞으로도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고객 만족을 최대로 이끌어 내는 한편 상생을 실천하는 ESG 경영도 실천해 가겠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던킨, 24시간 운영...배달전용 '던킨 투나잇' 출시

SPC 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주요 매장에 24시간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도입하고 배달 전용 메뉴 '던킨 투나잇'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던킨은 일부 매장에 심야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배달 이용률이 높은 강남분점, 강북구정사거리점, 선릉역점, 상록수역점, 연신내점, 화곡역점 등 12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해당 매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해피모드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던킨 투나잇'을 비롯해 던킨의 모든 메뉴 주문이 가능하다.

신메뉴 '던킨 투나잇'도 선보였다. '던킨 투나잇'은 '던킨만으로 충분해!(Dunkin' is Enough)'라는 콘셉트로 출시된 배달 및 포장



특화 메뉴다. 늦은 밤에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메뉴 구성도 다양하다. 던킨 투나잇은 '페이머스 글레이즈드'와 맥주와 잘 어울리는 '킬바사 소시지 버거', '내쉬빌 치킨버거', '순살 치킨텐더', '떠먹는 떡볶이 도넛' 등 던킨만의 이색 메뉴 등으로 구성됐다.

기동재본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非동거 자녀 대상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복지로'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가구 179만2778원 이하)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때문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에는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